



“초심으로 한 연기 좀 달라보였나요?”

MBC 월화극 '웰컴2라이프' 변호사역 정지훈

평행세계 주제 이색 소재·캐릭터 호평 “감독님만 믿고 연기...상업적으로도 성공해 기뻐” 후반 관전포인트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깨닫는 과정

“이번 작품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보여드렸던 색깔과는 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MBC TV 월화극 '웰컴2라이프'에서 알뜰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 이재상 역을 맡은 정지훈(37)은 2일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초심'을 강조했다. 중반 궤도를

한창 달리는 이 드라마는 평행세계라는 신선한 소재와 주인공의 명료한 캐릭터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정지훈은 “안심하기보다 시청자분들이 제 연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다. 상업적으로도 작품성으로도 호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촬영에서 연기의 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지훈은 “두 번째 촬영부터 감독님이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며 제 가슴에 못을 박으시더라”며 “감독님이 현장에서 지적하면 굳소리 없이 다 받아들이고 고치자는 마음을 먹고 노력했다. 감독님을 믿고 따라가 만족했다”고 극복 과정을 설명했다.

정지훈은 이재상 캐릭터에 대해 “1~2부에 나왔던 악질 변호사 연기를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했다. 뒤에선 성격이 착해져서 아쉬웠다”며 “극 후반에 드디어 다시 오만한 검사로 다시 돌아오는데 나는 굉장히 맘에 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지훈과 배우 연기로 호흡을 맞추는 임지연(29)은 ‘웰컴2라이프’에서 처음으로 엄마 역할에 도전했다. 임지연은 “모성에 연기가 처음엔 부담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더 편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정지훈 오빠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딸 역할 이수야 양도 워낙 편하게 대해줘서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촬영 중 각목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한 박시양(32)은 “각목에 맞으면서 출혈이 심했지만, 제작진이 빠른 대처로 급급차를 불러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줬다. 상처가 크지는 않다”며 안심시켰다. 다만 연출을 맡은 김근홍 PD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난 건 연출의 책임이다. 사고 대응 지침이 사전에 있어 대응하긴 했지만,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MBC 월화극 편성은 ‘웰컴2라이프’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경영난에 빠진 지상파가 월화극 제작을 중단하는 기조다. 김 PD는 “지상파의 가장 큰 위기는 채널이 노령화가 된 것이다. 이 드라마는 노령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상파가 젊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반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극 후반부에는 인물들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M 숲’ 생겼다

방탄소년단 팬 250여명 생일 맞아 한강공원에 조성

그룹 방탄소년단 RM(본명 김남준·25) 생일을 맞아 팬들이 그의 이름을 딴 숲을 선물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2일 생일을 맞는 RM을 축하하고자 팬 250여 명이 지난달 31일 잠실 한강공원 만남의광장 시계탑 앞에서 ‘RM 숲 1호’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팬들은 평소 환경에 관심을 나타낸 RM을 위해 한강 자연성 회복,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를 기대하며 조팝나무 1250그루를 심어 숲을 만들었다.

팬들은 이 숲을 위해 RM이 태어난 날인 1994년 9월 12일을 뜻하는 199만4천원과 912만원의 합산 금액 1천111만4천원을 기부했다.

‘RM 숲 1호’를 처음 제안한 팬 허니주니(NAMU JOON)는 “RM 숲 1호를 조성하는 활동에 국내외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2020년에도 RM 숲 2호를 조성해 숲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맑고 신선한 공기와 쉼터



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요계에선 팬들이 가수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고 자 스타의 이름을 붙여 숲을 조성한 사례가 다수다. 서태지 팬들은 2012년 그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70km 떨어진 대서양 연안 열대 우림지역인 과피 아수에 ‘서태지 숲’을 조성했다. 또 2015년에는 서태지가 팬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서태지 숲’에서 20km 거리에 ‘서태지 마니아 숲’을 만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12년 신화 팬들이 국내에 ‘신화 숲’을 일궈주며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투애니원 등의 이름을 딴 국내외 숲도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로 만나는 ‘EBS 덩동맹 유치원’

11월 ‘덩동맹 친구들’로 리뉴얼 주인공 하루의 모험기 그려

37년 전통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덩동맹 유치원’이 올해 EBS 가을 개편에서 어린이 드라마 포맷으로 거듭난다.

EBS는 3월 가을 개편을 단행하며 교육 가치와 공영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신설·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82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EBS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 ‘덩동맹 유치원’이 ‘덩동맹 친구들’로 전면 리뉴얼되는 점이다.

오는 11월 11일 오전 8시 선보이는 ‘덩동맹 친구들’은 장난감 마을 ‘덩동 시(市)’에서 주인공 하루가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단추 마녀와 맞서는 모험기를 담는다.

EBS 측은 “유아·어린이 콘텐츠의 핵심 경쟁력은 스토리텔링과 매력적인 캐릭터”라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개발하고 캐릭터별로 시리즈를 확장할 수 있는 세계관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23일 심야 시간대에 편성된 ‘별일 없이 산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패들 4~5명이 장애가 아닌 취업, 연애, 육아 등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다.

장애인을 ‘소외계층’으로 보고 ‘차이’를 강조해 가보다, 이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담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전한다.

EBS는 이 밖에도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직장탐구 팀’, 작가들과 함께하는 책방 산책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노래로 공감하는 ‘싱어즈’, 연예인 2명이 동남아 현지를 직접 찾아가는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등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소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저스티스(재)		00 애니갤러리 30 방학특집 안녕 자두야 언더 더 씨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제27회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MBC네트워크특선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쉼!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피하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습터	00 저스티스	0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닥터탐정
11	00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10 썬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KBS 뉴스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TV는 사랑을 싣고(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가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2:10 극한직업	17:30 페퍼 피그(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00 EBS 다크프라임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45 페퍼 피그	13:55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8:00 덩동맹 유치원	14:45 물랑	19:00 스파이더맨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10 로보가 폴리(재)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윈더볼스	15:55 출동! 슈퍼윙스(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25 마사와 곰(재)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0 덩동맹 유치원(재)	23:55 EBS 초대석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00 EBS 뉴스	24:25 지식의 기쁨(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음 8월 6일 甲辰) ☎010-9790-8237

<p>36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회하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48년생 가파른 낭떠러지에 서 있는 판세에 비유할 만하다. 60년생 사소한 장애 요소는 개의치 말라. 72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84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함께하여도 무방하다. 96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0, 45</p>	<p>30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42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54년생 일방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6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78년생 신용이 자원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90년생 작은 차이는 무시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14</p>
<p>37년생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추진하는 것이 옳다. 49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61년생 백해무익한 것에 대한 정산은 빠를수록 좋다. 73년생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 85년생 서로 간에 유익한 방법이 따로 있으니 모색해 보라. 97년생 성취의 교두보를 설정하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4, 64</p>	<p>31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3년생 맹점을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55년생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67년생 식견이 풍부함이 조연을 참고하는 것이 옳다. 79년생 흐름이 유연하여 쉽게 이루어지겠다. 91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함으로 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행운의 숫자 : 76, 22</p>
<p>38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50년생 단일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62년생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74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86년생 무리하다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98년생 시비를 가리기 전에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55, 98</p>	<p>32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44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56년생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68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라. 80년생 부당한 탐욕과 준비가 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리라. 92년생 뿌리 깊은 업보가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이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0, 32</p>
<p>39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1년생 선별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맞다. 63년생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이익이 있다. 75년생 실마 찾은 것이 현실로 다가 오게 되리라. 87년생 꼭 이해해야 할 배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라. 99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74, 76</p>	<p>33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 편안하리라. 45년생 중형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57년생 순간의 오만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분배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81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93년생 과신하다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6, 91</p>
<p>40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52년생 총체적인 점검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도량이다. 64년생 한 번 결정된 것은 반복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중도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 면 알차게 거두리라. 88년생 가장 기본적인 면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느니라. 00년생 주체성과 확고부동한 자기 확신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97, 49</p>	<p>34년생 리듬을 잘 타야만 무탈하다. 46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58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잘 살펴봐라. 70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82년생 다각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노라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94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72, 68</p>
<p>41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본다. 53년생 사전에 대처해야 자질이 없을 것이다. 65년생 억지로서는 아니 되는 법이니 무리 없는 양상으로 이끌 필요가 있느니라. 77년생 확인한 후에 처리함이 옳다. 89년생 기초가 되는 자질을 꼭 점검해 보는 것이 옳다. 01년생 반드시 준비 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1, 11</p>	<p>35년생 순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47년생 한 번 시작 된다면 실패라 풀려 줄 것이다. 59년생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 왔던 바가 뜻밖의 판세로 비화 될 수 있다. 71년생 폭풍전야와도 같다. 83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 95년생 짐작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31, 92</p>